



## 최근 소비 감소의 가구 유형별 특징

이태열 선임연구위원

- 2020년 1/4분기 우리나라 가구의 소비 증가율이 소득보다 10%p 이상 낮게 나타나는 것은 매우 특이한 현상이라 할 수 있음
  - 소득과 소비의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이 10%p 이상 확대된 경우는 외환위기 이후 급속한 회복기였던 1999년 1/4분기와 2/4분기 이후 처음 발생한 것임
  - 특히, 1999년에는 소비 증가율이 소득보다 크게 높은 경우였기 때문에 소비 증가율이 소득보다 크게 낮은 경우로는 2020년 1/4분기가 최대 규모라 할 수 있음
  
- 2020년 1/4분기 소득과 소비 증가율 갭을 가구 유형별로 볼 때 고령층 가구일수록, 맞벌이 가구가 아닐수록 그 규모가 확대되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음
  - 소득과 소비의 증가율 갭은 39세 이하(5.96%p)보다는 40대(8.51%p)에서, 40대보다는 50대(10.65%p)에서, 50대보다는 60세 이상(21.14%p)에서 현저히 커지고 있음
  - 가구주가 맞벌이인 경우와 맞벌이가 아닌 경우도 증가율 갭이 각각 5.15%, 16.83%로 나타나 상호 차이가 10%p 이상임
  - 반면, 소득수준, 가구주 교육수준, 자녀 수, 주거형태별 구분에서는 증가율 갭의 특별한 법칙성이 발견되지 않았음
  
- 소득에 비해 소비가 크게 감소한 고령층 가구와 맞벌이가 아닌(맞벌이 외) 가구의 경우 대인 접촉이 불가 피한 항목을 중심으로 전체 평균에 비해 소비지출이 크게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남
  - 가구주 연령 60세 이상 가구와 맞벌이 외 가구는 전체 평균과 비교할 때 「교통」, 「가정용품·가사서비스」, 「기타상품 서비스」 등 대인 접촉이 많은 항목에서 전체 평균보다 지출이 크게 감소함
  
- 최근 나타나고 있는 소비 축소는 코로나19가 갖는 질병적 특징이 가계의 소비활동에 직접적이고 다양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바 향후 성공적인 방역이 내수 회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
  - 특히, 내수 경기 회복은 일부 계층의 소비 증가에 의해서 뒷받침되기 어렵기 때문에 전반적인 가계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의 가계 경제 상황에 대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임

## 1. 배경



- 2020년 1/4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계층 간 소득 격차가 확대되고 소비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
  - 소득 5분위별로 볼 때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 가계의 소득은 2020년 1/4분기 전년동기 대비 -0.01%의 증가율을 기록한 반면, 5분위는 6.35% 증가하여 소득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음<sup>1)</sup>
    - 소득에서 조세와 사회보험료 등 비소비지출을 제외한 처분가능소득의 경우도 1분위는 전년동기 대비 3.95% 증가하고 5분위는 8.30% 증가하여 상대적인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
  - 2020년 1/4분기 우리나라 가구의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전년동기 대비 5.11% 증가하였으나, 소비지출은 5.98% 감소하여 양자 간의 증가율 차이가 11.09%p에 이르고 있음
    - 특히 소비지출은 「의료·신발」(-27.97%), 「오락·문화」(-25.61%), 「교육」(-26.33%), 「음식·숙박」(-11.15%) 등을 중심으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음
  
- 본고는 상기의 특징 중에서 소득과 소비의 증가율 차이가 크게 확대된 점에 주목하고, 이러한 현상이 가구의 특징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 논의하고자 함
  - 소비는 구매력을 의미하는 소득(특히 처분가능소득)의 변화와 동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현상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음
  - 본고는 소득과 소비의 증가율 갭이 우리나라 가구의 소득수준별, 연령별, 교육수준별, 자녀 수별, 맞벌이 여부별, 주거형태별로 어떤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 검토하고자 함
  -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가계경제의 소비가 회복되어 내수 경기가 활성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유형의 가구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파악하는 것은 유의미할 것임

1) 본고의 자료는 전국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한 것이며, 소득 및 소비 관련 통계는 명목 기준임. 실질 기준 통계는 가구 특성별 분류에 한계가 있어 명목 기준 통계를 활용하였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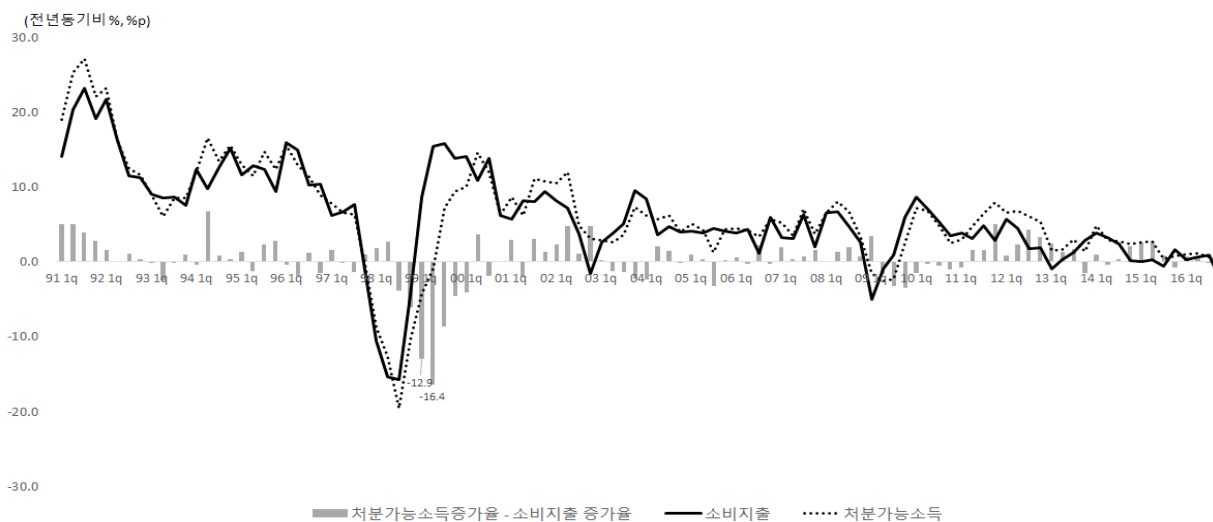
## 2. 소득과 소비 증가율 격차의 의미



■ 2020년 1/4분기에 발생한 소득과 소비의 증가율 갭은 그 규모에 있어서 매우 특이한 경우로서 과거 외환위기 때와 같이 경제 여건이 매우 불안정한 경우에 발생하였음(그림 1) 참조

- 소득과 소비 증가율의 추이를 보면 양자 간 갭이 10%p 이상 벌어지는 것은 매우 드문 경우이며, 외환위기 이후 급속한 회복기였던 1999년 1/4, 2/4분기 이후 처음 발생한 것임<sup>2)</sup>
  - 1991년부터 2016년 동안 우리나라 가계경제의 처분가능소득과 소비지출의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 추이를 살펴보면 양자 간 차이는 3%p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임
- 또한, 1999년 상반기에는 소비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인 반면, 2020년 1/4분기는 반대로 소비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보다 현저히 낮다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음
  - 따라서,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이 소비지출 증가율을 초과한 규모로는 최대치라고 할 수 있을 것임

〈그림 1〉 처분가능소득과 소비지출 증가율 추이 및 갭



자료: 통계청, 「가계동향조사」

■ 2020년 1/4분기 소득 대비 소비 증가율이 크게 낮은 것은 코로나19가 소비활동을 직접적으로 위축시켰거나, 우리나라 가계가 현재 소득 수준보다 미래 경제 여건을 비관적으로 보기 때문일 수 있음

2) 통계청의 가계경제조사는 2017년부터 소득과 지출을 별도로 조사하였다가 다시 통합했기 때문에 부득이 1991~2016년 사이의 소득과 소비 증가율을 비교하였음

-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을 위해 '사회적 거리두기' 등이 실시되면서 정상적인 소비활동에 다양한 제약이 발생한 것이 소비 지출 감소의 원인이 될 수 있음
  - 특히, 소비지출의 감소가 외부적인 활동과 관계되는 「오락·문화」나 「음식·숙박」 항목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는 점도 이러한 추론을 뒷받침하고 있음
- 우리나라 가구가 현재 소득 수준보다는 미래의 소득 흐름을 비관적으로 예측하면서 이에 대비하기 위해 저축을 증대하면서 소비지출이 감소되었을 수도 있음
  - 소득이 단기적으로 급등하여 소비가 새로운 수준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도 소비 증가율이 소득보다 낮게 나타날 수 있으나 2020년 1/4분기에는 소득 급증이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음

### 3. 가구 특성별 소득과 소비 증가율의 격차



- 본장에서는 전장에서 논의한 소득과 소비 증가율의 갭을 가구 특성별로 검토하고 어떠한 특징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지 논의하고자 함
  - 우리나라 가구를 소득수준별, 연령별, 교육수준별, 자녀 수별, 맞벌이 여부별, 주거형태별 나누어 보았을 때 소득과 소비 증가율 갭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지 파악하고자 함
  - 본장은 가구특성별로 소득과 소비의 증가율 갭 사이에 뚜렷한 법칙성이 발견되는 경우를 선정하여 논의의 대상으로 하고자 함
    - 예를 들어, 가구주 연령별 구분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또는 낮을수록 증가율 갭의 크기가 일정한 방향으로 변화할 경우 논의의 대상에 포함하고자 함
- 가계의 특성별로 2020년 1/4분기 소득과 소비의 특성을 살펴보았을 때 가구주 연령별 구분과 맞벌이 여부에 따른 구분에서 주목할 만한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됨(〈표 1〉 참조)
  - 소득 5분위별로 볼 때 각 분위에서 소득은 증가하고 소비는 감소하는 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증가율 갭과 소득계층 사이에 일정한 법칙성이 나타나고 있지 않음
  - 연령별 구분에서는 가구주 연령이 고령일수록 소득과 소비의 증가율 갭이 커지는 현상이 쉽게 발견됨
    - 소득과 소비의 증가율 갭은 39세 이하(5.96%p)보다는 40대(8.51%p)에서, 40대보다는 50대(10.65%p)에서, 50대보다는 60세 이상(21.14%p)에서 현저히 커지고 있음
  - 가구주의 교육수준과 자녀 수에 따른 구분에서는 일정한 법칙성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증가율 갭의 크기도 상호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음

- 전술한 바와 같이 「교육」 항목의 지출 감소가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자녀 수가 증가율 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자녀가 없는 경우와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음
- 맞벌이 여부의 경우 가구주가 맞벌이인 경우와 맞벌이가 아닌 경우로 2개의 구분밖에 없기 때문에 법칙성을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상호 차이가 10%p 이상 크게 났기 때문에 논의의 대상에 포함함
- 주거형태별 구분에서는 주거의 안정성(자가 → 전세 → 월세)의 변화와 증가율 갭의 크기 사이에는 일정한 법칙성이 발견되지 않았음
- 따라서 본고에서는 소득과 소비 증가율의 갭을 논의함에 있어서 가구주 연령별, 맞벌이 여부별로 구분에 주목하고자 함

〈표 1〉 가구 특성별 소득과 소비 증가율 갭(2020년 1/4분기)

(단위: 증가율 %, %p)

구분	가계 특징별 구분					
	I	II	III	IV	V	
소득5분위	처분가능소득	3.95	2.23	1.75	4.65	8.30
	소비지출	-9.96	-7.33	-11.84	-1.40	-3.33
	증가율 갭	13.91	9.56	13.59	6.04	11.63
가구주연령		39세 이하	40~49세	50~59세	60세 이상	
	처분가능소득	4.13	2.91	4.04	14.26	
	소비지출	-1.84	-5.60	-6.60	-6.88	
	증가율 갭	5.96	8.51	10.65	21.14	
가구주 교육수준		중졸 이하	고졸	전문대졸 이상		
	처분가능소득	-0.02	3.60	5.62		
	소비지출	-11.75	-8.46	-4.65		
	증가율 갭	11.73	12.05	10.27		
자녀 수		없음	1인	2인 이상		
	처분가능소득	7.66	5.34	5.58		
	소비지출	-4.35	-3.96	-6.40		
	증가율 갭	12.01	9.31	11.97		
맞벌이 여부		맞벌이	맞벌이 외			
	처분가능소득	5.84	7.34			
	소비지출	0.69	-9.49			
	증가율 갭	5.15	16.83			
주거형태		자가	전세	월세	기타	
	처분가능소득	4.84	10.65	-6.11	19.09	
	소비지출	-6.61	-2.52	-8.82	1.25	
	증가율 갭	11.45	13.18	2.71	17.83	

자료: 통계청, 「가계동향조사」

■ 소득에 비해 소비가 크게 감소한 고령층 가구와 맞벌이 외 가구의 경우 대인 접촉이 불가피한 항목을 중심으로 전체 평균에 비해 소비지출이 감소하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음(〈표 2〉 참조)

- 소득에 비해 소비가 크게 감소한 고령층 및 맞벌이 외 가구의 소비 지출이 전체 평균과 비교할 때 어느 항목에서 더 큰 감소세를 보였는지 파악하고자 함

- 월평균 지출이 5만 원 미만인 「주류·담배」, 「교육」(가구주 60세 이상) 항목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함
- 가구주 연령 60세 이상 가구와 맞벌이 외 가구는 전체 평균과 비교할 때 「교통」, 「가정용품·가사서비스」, 「기타상품 서비스」 등 대인 접촉이 많은 항목에서 전체 평균보다 지출이 큰 폭으로 감소함<sup>3)</sup>
  - 「의료·신발」, 「오락·문화」, 「교육」(고령층 가구 제외) 등의 항목에서도 지출 감소가 크게 나타났으나 이는 사실상 모든 유형의 가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
- 특히, 코로나 19가 노인 계층에서 사망률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 때문에 고령층 가구의 소비가 대인 접촉이 있는 항목을 중심으로 크게 감소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임
- 또한, 가구주 60세 이상 가구나 맞벌이 외 가구의 경우 다른 가구에 비해 소득의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어 미래의 경제 여건을 다른 가구보다 부정적으로 보고 있을 수도 있음

〈표 2〉 고령층 및 맞벌이 외 가구의 항목별 소비 지출(2020년 1/4분기)

(단위: 만 원,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 %)

구분	전체 가구		가구주 60세 이상 가구		맞벌이 외 가구	
	규모	증가율	규모	증가율	규모	증가율
처분가능소득	429.09	5.11	308.99	14.26	351.96	7.34
소비 지출	287.79	-5.98	191.13	-6.88	249.02	-9.49
식료품·비주류음료	44.53	10.47	40.06	9.52	42.86	8.81
주류·담배	3.60	-4.18	2.51	-13.88	3.40	-1.79
의류·신발	11.91	-27.97	6.33	-29.17	9.84	-31.58
주거·수도·광열	33.86	-1.79	30.14	-7.58	31.86	-6.36
가정용품·가사서비스	13.22	-11.59	9.04	-19.80	10.76	-24.27
보건	27.23	-9.90	27.19	-1.93	26.23	1.78
교통	34.21	4.28	17.77	-20.69	25.91	-9.84
통신	14.46	0.46	9.46	1.86	13.36	2.14
오락·문화	18.09	-25.61	10.10	-25.97	15.75	-20.58
교육	26.41	-26.33	2.95	14.28	20.03	-27.77
음식·숙박	34.97	-11.18	19.95	-8.43	29.56	-10.78
기타상품·서비스	25.31	3.10	15.84	0.67	19.67	-8.90

자료: 상동

3) 「교통」 항목에는 각종 대중교통 요금, 「가정용품·가사서비스」 항목에는 세탁, 청소 등 각종 가사와 가전 및 가구 관련 서비스 요금, 「기타 상품·서비스」 항목에는 이미용 및 돌봄 관련 요금 등 대인 접촉이 불가피한 소비가 포함되어 있음

## 4. 내수 회복을 위한 시사점



- 최근 나타나고 있는 소비 축소는 코로나19가 갖는 질병적 특징이 가구 소비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바 향후 성공적인 방역이 내수 회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
  - 코로나 19에 대한 사망률이 높은 고령층이 교통,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소비지출 감소를 주도했다는 것은 향후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 등 방역의 성공 여부가 소비 회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임을 의미함
    - 소득보다는 소비가 크게 감소했다는 점에서 미루어 볼 때, 2020년 1/4분기 우리나라 가계는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가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
  - 물론, 2020년 1/4분기는 코로나19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초기 시점에 해당되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 가계 경제의 반응을 논의할 수밖에 없음
    - 2/4분기부터는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영향에 더해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소득 감소가 진행 되는 반면, 재난지원금에 따른 일시적 소비 증대 효과 등이 나타나면서 가계 소비 지출은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
  
- 향후 내수 회복을 위해서는 다양한 특성이 최근 나타나고 있는 가구별 소비 행태의 특성에 주목하여 전반적인 소비 증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하여야 할 것임
  - 최근 나타나고 있는 소비 위축은 기본적으로 질병에 의한 것인 만큼 일반적인 경제 위기와는 매우 다른 형태로 내수 경기를 위축시키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할 것임
  - 내수 경기 회복은 일부 계층의 소비 증가에 의해서 뒷받침되기 어렵기 때문에 전반적인 가계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의 가계 경제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
  - 특히, 우리나라는 내수 경기의 회복이 절실한 반면, 각종 조세와 준조세의 인상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이 서로 다른 유형의 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미시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임 **kiri**